

현대 서양미술사에서 추상회화는 바실리 칸딘스키로부터 비롯된다. 그에 의해 시도된 최초의 추상회화는 1910년(수채화)으로 소급된다. 추상회화의 출현을 예비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칸딘스키와 관련한 일화가 전해진다. 즉 모스크바에서 열린 인상파전에 대한 인상이 그 하나이고, 뒤집힌 그림에 대한 1909년경의 경험이 또 다른 하나이며, 마지막으로 바그너의 오페라를 통해 본 감상이 또 다른 하나이다.

작가는 당시 인상파전에 출품된 모네의 <건초더미>를 보고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을 그린 그림인지 알지 못했다. 그림의 제목을 보고서야 건초더미를 그린 것임을 알았지만 미심쩍은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모네가 그린 <건초더미>는 사실적이고 재현적인 기법 대신, 인상주의 고유의 화법을 발전시킨 그림이었다. 그림에서 건초더미는 그것에 가해지는 빛의 세례를 표현한 특유의 화법, 즉 중첩된 필 축의 색점들로 인해 고유의 형태와 양감이 거의 해체되어 있었다. 또 다른 사건은 해거름에 작가가 우연히 아름다운 그림과 마주한 것이었다. 사실 그것은 뒤집힌 채로 화실의 구석에 놓인 작가 자신의 그림이었다. 이들 두 사건이 작가로 하여금 회화에 있어서 대상 혹은 주제 혹은 재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했고, 실제 하는 대상이 회화의 필수 조건이 아닐 수도 있음을, 그러므로 회화는 특정한 대상을 재현하지 않고서도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하게 했다. 그리고 바그너의 오페라는 청각적 기호와 시각적 기호가 서로 호환되는 공감각을 착상하게 했다.

미술에서 추상이란 말은 어떤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기보다는 그것의 본질을 압축한 표현을 말한다. 세계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이 어떤 식으로든 실제 하는 세계를 암시하고 상기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추상적 회화 표현은 상징적 언어 관습과 만난다. 이를테면 빨간색이 놀람을, 검은색이 죽음과 암울한 정서를, 곡선이 우아한 레이스 장식을, 날카로운 선이 금속성과 속도감과 웬지 모를 불안감을, 부드러운 소리가 연인의 애무를, 오케스트라의 드럼 소리가 어떤 긴박감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즉 놀랄 만한 사건이나 상황을 직접 재현하지 않고 단순히 빨간색의 제시만으로 그 상황이 요구하는 정서를 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상황에 대한 인식의 이러한 환원 혹은 전이는 거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능력은 인간의 총체적인 지각력과 오감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공감각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한편으로 추상회화는 아무런 외적 대상도 재현하지 않는 미술 그러므로 탈재현적인 회화를 의미한다. 대신 재현의 대상은 인간 내면의 심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리고 회화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으로 옮겨간다. 여기서 다시 인간 내면으로 옮겨진 대상은 무의식의 표현으로, 상상력의 표현으로, 정념의 표현으로 분화되면서 다양한 표현을 낳는다. 이처럼 인간의 내면과 결합된 추상회화를 뜨거운 추상 혹은 서정 추상이라고 한다. 유럽의 앙포르멜(비정형, 프랑스의 비평가 미셀 타피에가 명명한)과 타시즘, 미국의 추상표현주의(미술평론가 알프레드 바가 명명한)와 액션 페인팅(미술평론가 헤롤드 로젠버그가 명명한), 그리고 로버트 마드웰과 마크 로스코에서 볼 수 있는 일부 초기 색면파 회화가 여기에 속한다. 앙포르멜 회화와 얼룩 혹은 파편으로 번역되는 타시즘은 장 포틀리에의 <인질> 연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유럽인의 총체적이고 실존적인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추상표현주의와 액션 페인팅은 잭슨 폴록과 윌렘 드쿠닝을 중심으로 최초로 미국의 자생적인 회화를 연 계기로 평가된다.

따라서 흔히 추상표현주의와 액션 페인팅을 <뉴옥화단>이라고 별칭하기도 한다. 참고로 잭슨 폴록은 자신의 회화를 통해 아메리카 인디언의 강한 영적 울림과 신대륙의 광활한 대지가 주는 막막한 인상과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한다. 그리고 로버트 마드웰과 마크 로스코의 회화는 숭고의 감정과 함께 강한 종교적 심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뜨거운 추상 혹은 서정 추상은 인간의 내면적인 정념을 표현하려는 경향성이 강하다.

이에 반해 회화의 본질을 대상으로 본 경향성의 회화는 점, 선, 면, 색채, 양감, 질감, 그리고 평면(성)을 회화의 본질로 간주하고, 그것을 표현의 대상으로 삼는 태도를 말한다. 재현적인 회화를 문학으로부터 빌려온 서사적 특질로 간주하는 만큼 회화에서의 내용적인 측면을 화면에서 배제한다. 이와 관련한 모리스 드니(나비파 화가)의 전언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즉 그에 의하면 회화란 화면 위에 재현되거나 서술된 특정 사건 혹은 이야기이기 이전에 일정한 색채로 뒤덮인 평면을 의미한다. 더불어 회화에 대한 순수한 감상의 표현을 주장한 카지미르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회화(1915년 시인 마야코프스키의 슈프레마티즘 선언으로 뒷받침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절대 회화란 평면과 최소한의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된다. 한편으로, 회화의 궁극적인 본질을 평면(성)으로 간주한 클레멘트 그린버그의 모더니즘적 형식주의적 환원주의적 관념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추상회화의 대상은 외부 세계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경우 본질은 사실상 작가의 관념을 표현하는 것이 된다. 예컨대 피에트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적 관념에 의하면 세계의 본질은 수평선과 수직선의 교직, 청 적 황의 삼원색과 흑색과 백색 그리고 회색 등 최소한의 색채 구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 한편, 세계를 원통과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하는 것으로 사물의 본질(사물의 구조?)을 추구한 세잔의 태도 역시 그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회화 혹은 외부 세계의 본질을 표현하는 추상적 회화 관념이 차가운 추상 혹은 기하학적 추상 회화로 불린다.

이처럼 추상회화는 인간 내면의 무의식, 상상력, 정념에 주목함으로써, 재현 대신 상징과 기호를 통해 암시하는 방법론에 주목함으로써 인간 의식의 의미 지평을 확장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회화(예술)의 본질에 주목함으로써, 회화(예술)가 일정 정도 세계와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자족적인 회화(예술)가 가능하다는 생각(관념)을 낳고 있다.